



## 헝가리

# 추가적인 민영화 작업, 전망은 밝지 않아

1990년대 말까지 대부분의 주요 국영기업을 성공적으로 민영화한 헝가리 정부는 향후 2년간 잔여 국영기업 정부지분의 대부분을 민영화한다는 목표 아래 민영화를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고 있다. 민영화 작업의 재개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의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현재 헝가리 정부가 매각하기 위해 내놓은 국영기업들은 최근 주변 국가들이 매각한 국영기업에 비해 투자매력이 덜한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은 헝가리 정부의 공언대로 국영기업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들의 매각이 실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민영화법의 개정을 통한 국영자산의 추가 매각

헝가리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민영화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는데, 동 개정안은

반드시 정부의 통제하에 두어야 하는 국영기업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의회의 승인을 거친 동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부는 추가적인 민영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여 국가가 주주(株主)로서 헝가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민영화 담당 정부기관인 APV(State Privatization and Asset Handling Company)가 수립한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2003~04년에 3,200억 포린트 규모의 국영자산이 매각될 예정이며, 2005~06년에 추가적으로 1,550억 포린트 규모의 국영자산이 매각될 예정이다. 이 계획대로 민영화 작업이 진행될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의 수는 현재의 180개에서 2004년 말에는 80개, 2006년 말에는 35개로 줄어들게 되며, 정부 보유 국영자산 규모도 2,000억 포린트로 줄어들게 된다.

헝가리 정부가 내년에 우선 매각할 예정

인 국영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영 항공사 Malev, 철강회사 Dunaferr, 해운회사 Mahart를 비롯하여 현재 대형은행들 중 유일하게 국영은행으로 남아있는 Postabank를 포함한 3개 은행 등이다. 여기에다 헝가리 정부는 국영기업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양대 기업, 즉 석유 및 가스 독점 공급회사 MOL과 제약회사 Richter Gedeon의 지분도 2003년 중반과 2004년에 25%씩 매각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4월의 총선 승리로 집권한 메드제시(P. Medgyessy) 총리의 좌파 연립정부가 대단히 시장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재정적자 악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로 추가적 민영화의 필요성 대두

이 같은 민영화 작업 활성화는 현재 헝가리 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헝가리는 1990년대 중반에 상당히 많은 국영자산을 매각한 바 있으나, 이후 중요한 국영자산을 민간투자자 특히 외국인투자자에 매각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남은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추가적인 민영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메드제시 총리는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인 국영자산의 매각을 정치권 일각의 여론몰이에 좌우되지 않고 시장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며 추가적인 민영화 작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재정적자 문제는 정부로 하여금 추가적

인 민영화 작업에 나서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다. 국영기업에 대한 출자 및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나, 지난 4월의 총선을 전후하여 공교롭게도 브루이 보크 이사 민 가조 구공사어의 실시로 인해 정부의 예산지출이 이미 상당히 확대된 상태이며, 경기둔화로 인해 정부의 추가적 지출확대 여력도 크게 축소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국영기업들은 저조한 경영실적으로 인해 기업가치 증대와 순이익 창출에 실패하고 세금만 축내는 존재로 전락한 상태이다. 민영화를 주관하는 동시에 국영기업의 경영에도 관여하는 APV 역시 이들 국영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고갈되어, 이제는 국영기업의 형태로도 이익을 올릴 수 있거나 경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부문의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의 감소 또한 정부로 하여금 추가적인 민영화를 추진토록 만드는 요인이다. 2001년 중 24억 달러에 이르렀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금년 1~8월중에는 불과 8억 달러에 그치는 심각한 부진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면서 유로본드를 추가 발행한다 해도 각종 재정지출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진 지금, 민영화에 의한 대규모의 외화자금 유입 없이는 커져만 가는 재정적자 및 경상적자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원활히 운용해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시각이다.

헝가리 정부는 민영화의 보다 빠른 진척을 바라고는 있으나, 국영기업들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법의 개정이 매각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국영기업의 숫자를 대폭 늘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오히려 민영화 문제에 있어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 민영화 협상에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협상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APV는 국영기업의 매각 스케줄을 세웠으나, 동 스케줄이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 매각의 시기와 순서는 향후 시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추가적 민영화의 규모와 정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기에는 미흡**

비록 추가적인 민영화 계획이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도, 현재 헝가리 정부가 추진중인 민영화의 수준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 서로 경쟁관계인 주변 국가들에 비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헝가리 정부는 내년 중 단행할 민영화로부터 약 7억 8,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같은 규모는 체코 정부가 이미 가스회사인 Transgaz 및 산하 8개 공급업체를 약 40억 달러에 매각한 데 이어 독점 통신업체인 Cesky Telecom을 17억 달러에 매각키로 잠정적인 합의를 본 데 비하면 빈약하기 그지없다. 체코와 인접한 슬로바키아 역시 올해 독점 가스회사 SPP의 지분 49%를 27억 달러에 매각한 바 있으며, 심지어 GDP

규모가 헝가리의 약 37%에 불과한 슬로베니아<sup>1)</sup>마저 금년 중 국영은행인 NLB의 매각으로 헝가리 정부가 내년 중의 민영화로부터 기대하는 총 목표수익의 50%를 넘는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헝가리 정부가 1~2년 내 민영화할 예정인 국영기업들 중 특별히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기업이 없다는 점도 민영화의 성공적인 추진에 회의를 품게 만든다. 내년 중 민영화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Postabank의 경우조차 이미 작년엔 헝가리 정부가 민간에의 매각을 시도했으나 자산건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실패한 바 있다. 헝가리의 국영기업 중 가장 가치가 높은 두 기업인 MOL과 Richter Gedeon의 민영화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만하나, 이 두 기업의 민영화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Richter Gedeon은 슬로베니아의 Lek에 이은 중부 유럽 제2위 규모의 제약회사로, 최근 스위스의 유명 다국적 제약회사인 Novatis로부터 8억 5,000만 달러에 인수 제의를 받은 바 있다. 중부 유럽 소비자들의 의약품 관련 소비지출은 아직도 대부분의 서유럽 소비자들에 비하면 매우 적어, 장차 이 지역 의약품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2004년으로 예정된 헝가리의 EU 가입을 고려하면, 헝가리 정부의 동사 지분 25% 매각은 중부 유럽의 의약품 시장을 장악하는 한편 서유럽 지역에 비해 낮은 인건비를 무기로 생산원가를 낮춰 EU

1) 2001년 말 GDP는 헝가리가 503억 달러(인구 1,020만 명), 슬로베니아가 187억 달러(인구 198만 명)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다국적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25%의 정부지분을 2004년에 매각한다는 잠정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Richter Gedeon의 민영화가 조만간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헝가리 정부는 장차 동사를 100% 민영화할 경우 국가적 자산으로까지 여겨지는 동사의 연구개발 부문 능력이 당장의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경영에 의한 동 부문에의 투자 감소로 인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정부지분 매각시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을 내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동사의 100% 민영화를 허용치 않을 것임을 의미하며, 그러한 조건하의 민영화가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을 얼마나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2004년 중 동사의 정부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헝가리 최대의 기업이자 석유 및 가스의 독점 공급업체인 MOL의 정부지분 25% 매각 계획도 그 자체로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미 동사의 지분10%를 보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OMV, 그리고 러시아의 독점 가스회사인 Gazprom 및 석유메이저인 Yukos와 TNK 등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건 역시 정부지분 매각 방법 및 조건에 관한 헝가리 정부의 애매한 태도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칠라그(I. Csillag) 경제장관은 최근에

MOL을 2003년 중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정부지분을 여러 투자자에 나누어 매각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으나, 이러한 방식에는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 칠라그 장관은 정부가 먼저 가스가격 결정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어 MOL의 가스 사업부문을 별도로 분리한 다음 석유 및 가스 시장의 자유화 및 투명성 재고를 위한 법률을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석유 및 가스 가격은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물론 최소한의 생산비용을 커버하는 가격보다도 낮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민영화를 시행하려 할 경우 유권자들의 반발에 부딪칠 것을 우려한 정치권이 민영화 자체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헝가리 정부가 MOL의 사업부문 중에서도 적극 매각하려 하는 가스 사업부문의 미래 자체가 불투명한 점 또한 동 건의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가 가스가격을 최소한의 생산비용을 커버하는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계속 통제할 결과 MOL의 가스 사업부문은 이미 심각한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부 유럽 지역의 석유 및 가스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상실하고, 현재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서유럽과 러시아의 대형 기업들에 국내 시장마저 고스란히 내주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MOL의 가스 사업부문을 100% 국영으로 다시 전환하려는 시도가 메드제시 총리의 취임 전에 있었던 점 또한 불편한 문제

이다. 이 같은 시도는 메드제시 총리가 취임과 더불어 무산시킨 바 있으나,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확실히 못박아두지 않는 한 가스 사업부문의 민영화 여부 자체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러시아의 거대 석유자본이 동사의 가스 사업 부문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민영화에 대한 헝가리의 국내 여

론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냉전 시대 소련의 위성국으로 그 영향 아래 있었던 헝가리로서는 자국의 에너지 공급이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의 기업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吳 旻 駟】